



이메일 구독



카카오톡 채널

중진공
뉴스레터



중진공에 전하는 소식에 풍요



2023. 07. VOL22

SPECIAL THEME

FIRE UP START UP



중진공이 전하는 소식에 풍긋

중진공 뉴스레터
2023.07 VOL.22

Special Theme

Fire up
Start-up

- 03 DASH BOARD
- 스타트업 관련 지표
- 05 INSIGHT REPORT
- 07 중소기업in
(주)직방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날아오른 비결은
- 09 중진공 지원사업
- 11 플러스 지원정보
- 13 스타트업에 딱 좋은! 중동 진출 유망분야
- 14 꼼꼼 가이드! 스타트업 투자유치 단계

New Wave

7월의 경제 포커스

- 15 Hot! 키워드
- 16 경제 이슈 읽기
- 17 Monthly 경제 동향
- 18 DASH BOARD
금융경제지표 모니터링



Cover story

지금 이 순간도
가슴 뛰는 열정으로 꿈을 키워가는 수많은 스타트업.
그들에게 힘이 될 스타트업 지원정책 정보를 담았습니다.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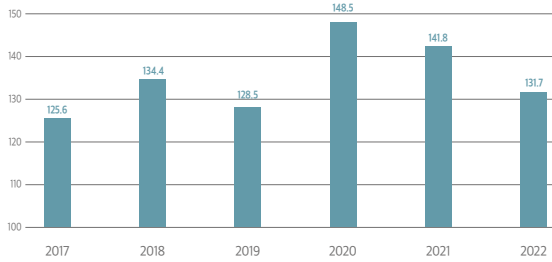
스타트업 관련 지표 🔍



▼ 창업 생태계

단위: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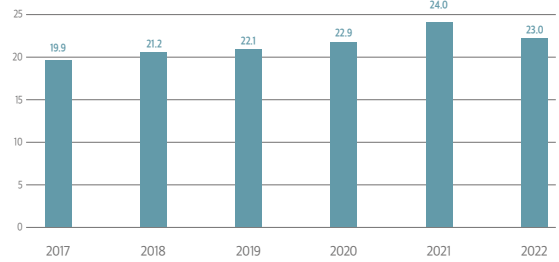
<전체 창업기업 수>



출처:국가통계포털

단위: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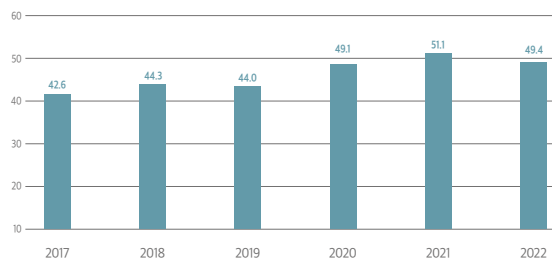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 수>



출처:국가통계포털

단위: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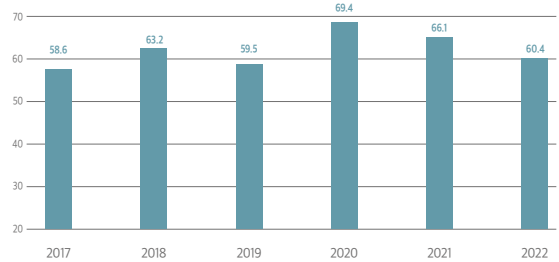
<청년 창업기업 수>



출처:국가통계포털

단위: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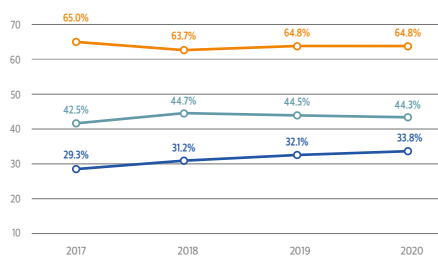
<여성 창업기업 수>



출처:국가통계포털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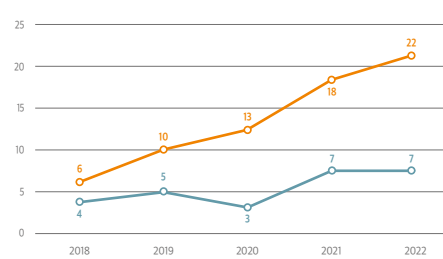
<신생기업 생존율(1년, 3년, 5년)>



출처:국가통계포털

누적 신규 단위: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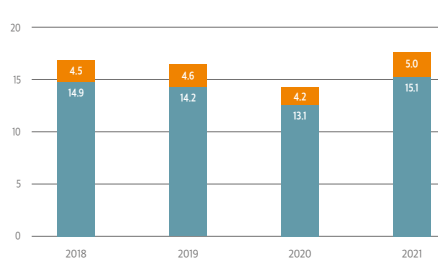
<국내 유니콘 기업 수>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0% 이상 고성장기업 20% 이상 고성장기업 단위: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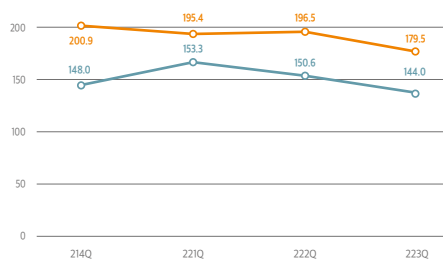
<고성장기업 수>



출처:국가통계포털

수도권 비수도권 단위:천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창업기업 수>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창업진흥원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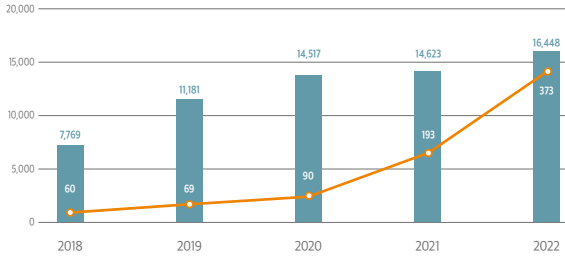
스타트업 관련 지표 🔍



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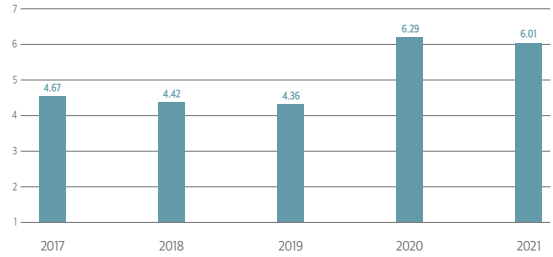
— 지원기업 수 — 예산규모 단위:억원, 개

<정부 지원 규모>



출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업진흥원

<정책자금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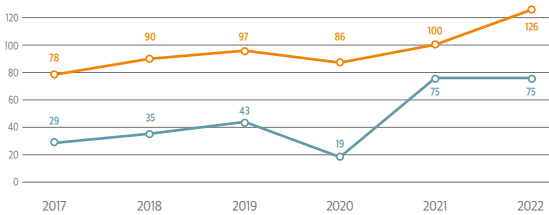


출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업진흥원

스타트업 투자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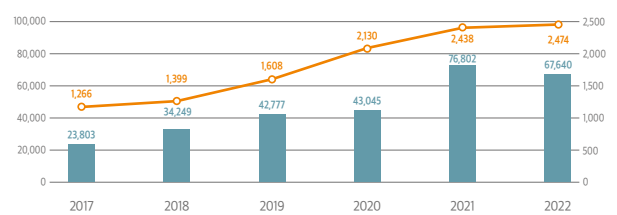
— IPO — M&A 단위:건

<M&A, IPO(코스닥+코넥스) 건수>



출처:플랫폼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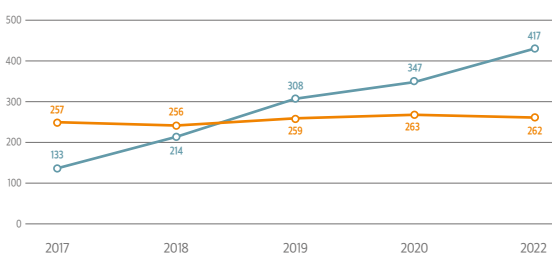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 규모>



출처: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창업보육센터 수 — 등록 액셀러레이터 수 단위:개

<등록 액셀러레이터 수 및 창업보육센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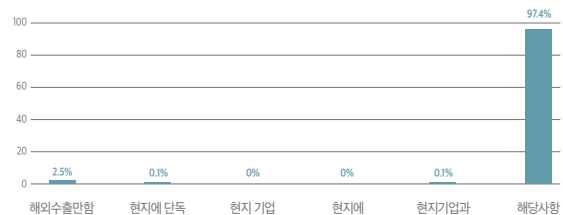
출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업진흥원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출처: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2년 조사(2020년 기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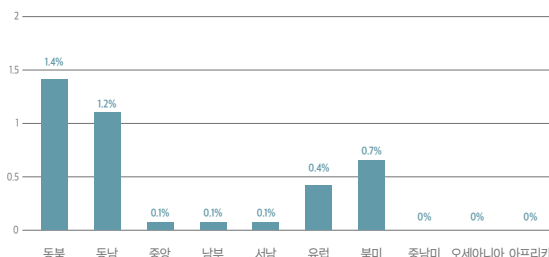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여부 및 유형>



출처: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2년 조사(2020년 기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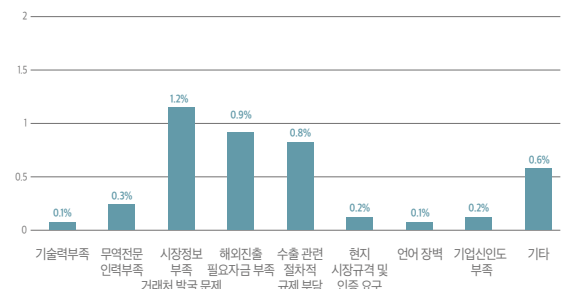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역>



출처: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2년 조사(2020년 기준) 복수응답

<창업기업 해외진출 애로 요인>



INSIGHT REPORT

최근 스타트업 이슈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및 시사점(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악화 전망, 금융 지원 관련 정책 수요 높음

- 스타트업 86.9%가 전년 대비 경제/금리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체감, 이어 투자/시장 상황(82.1%), 스타트업 운영(73.7%)도 악화 응답
-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을 비롯한 공급망 안정화, 국내외 투자 유치, 지방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지원 확대 필요

☑ 성장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유연한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높아

- 창업기업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로 창업 후 1~3년 이내(28.5%), 창업 전(26.3%), 창업 후 1년 이내(17.9%) 등의 순으로 꼽음
- 창업기업 정책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로 창업 후 3~5년 이내(36.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창업 후 5~7년 이내(22.1%), 창업 후 7~10년 순으로 나타남
- 창업 전에는 사업 기초 역량과 아이템 검증, 창업 초반에는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투자지원 및 사업화, 창업 중반에는 마케팅 및 판로지원 등 연계지원, 창업 중후반에는 스케일업 신성장 아이템 추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성장단계별 지원책 필요

☑ 스타트업 정책 지원 관련 지원대상 및 평가방법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기준 요구가 많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개선 필요

*업력 10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312개사 대상
2023. 5. 23 ~ 5. 31 설문조사

2023년 1~3월 창업기업 동향(출처:중소벤처기업부)

☑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23년 1분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4.4%(15,360개) 감소한 33만3,372개

- 1~3월 창업기업:('20)462,991개→('21)360,846개→('22)348,732개→('23)333,372개
- '22년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창업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47.9%)한 것이 1분기 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5.6%↑) 등은 전년 대비 신규 창업 수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14.0%↓), 건설업(9.4%↓) 등은 감소

- 전년 대비 신규 창업 수가 증가한 업종은 도소매업(7.9%↑), 정보통신업(13.4%↑), 전기·가스·공기(49.4%↑), 예술·스포츠·여가업(14.3%↑) 등
- 전년 대비 신규 창업 수가 감소한 업종은 부동산업(47.9%↓), 운수 및 창고업(13.5%↓), 금융 및 보험업(36.5%↓), 전문·과학기술(10.7%↓) 등

☑ 기술기반 창업은 62,299개로 전년과 비슷한 기록(0.2%(100개)↓)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고,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8%p 상승하며 역대 최고 기록

- 연간 1~3월 기술기반 창업 및 전체창업 중 비중:('20)58,892개(12.7%)→('21)61,882개(17.1%)→('22)62,399개(17.9%)→('23)62,299개(18.7%)

지역 예비유니콘*의 현황과 정책 과제(출처:산업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예비유니콘 70개 중 12개(17%)가 비수도권에 위치('20~'22)

- 약 5.8%만 비수도권에 위치할 만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한 유니콘 기업에 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유망 기술 기반의 예비유니콘 증가 추세

☑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의 주요 특징과 사업

-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 평균 누적투자유치액이 수도권 예비유니콘보다 저조
- 수도권 예비유니콘의 약 66%는 창업 후 스케일업까지 소요 기간이 짧은 IT 플랫폼·서비스, SW 업종인 데 반해 비수도권 예비유니콘 중 약 83%는 스케일업까지 오래 걸리는 제조, 바이오, HW 업종

☑ 지역 기반 예비유니콘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 지역 예비유니콘은 지역 신산업과 연계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의 관심과 체계적 지원 필요
- 지역 주력산업의 신산업 전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예비유니콘의 실증 기반 확대
- 지역 스타트업의 창업·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도 제고, 수도권 스타트업의 지방 이전 시 지원책 확대 필요

*예비유니콘이란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비상장 기업

*유니콘이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신생기업(스타트업)

INSIGHT REPORT

최근 스타트업 이슈



투자 스타트업, 넥스트 유니콘* 될까? 내재된 성장 DNA부터 남달라야(출처:포스코경영연구원)

☑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관심과 스타트업 투자 본격화로 '22년 투자 실적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투자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움

-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주요 전략 목표는 기술 확보와 시장 진입('Buy the Market')이나, 스타트업 투자(지분 투자·M&A)를 통한 기업들의 신사업 성공률은 높지 않음

☑ 성장 DNA 갖춘 유망 스타트업 발굴 중요

- 세 가지 성공 요인인 △業(비즈니스 모델): 고객 니즈를 '정조준'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 구체화 △場(시장·산업): 큰 배후 시장·성장산업·진입시기의 삼박자 조화 △人(창업팀):연쇄 창업자와 다양한 백그라운드 의 고학력 멤버들로 팀 구성 등이 중요

☑ 투자 이후 성공적 파트너십 유지 노력 필요

- 투자 기업은 스타트업의 불명확한 방향성과 거버넌스에, 스타트업은 기성 기업의 사고 방식에 불만을 갖는 등 어렵고 긴 의사 결정, 불투명한 기대 등으로 상호 불만 표출
- 상호 기대하는 바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룰에 합의하는 등 원활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과제

알리바바의 유망 스타트업 투자 사례와 시사점(출처:한국무역협회)

☑ 알리바바는 파트너 생태계 구축 강화, 미래 잠재 가치 등을 고려하여 2010년대 초부터 꾸준히 유망 스타트업 대상 투자 확대

-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달어플 오아러머(饿了么)와 젊은층 주요 SNS 샤오홍슈(小红书) 등이 알리바바 투자로 급성장한 스타트업

☑ 비대면 디지털 분야와 기술 발전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 스타트업 투자 확대, 2022년 투자 스타트업 중 분야별 대표 사례 9개사

- (전자상거래·마케팅 분야 3개사) 중저가 디자인 가구 브랜드 '카바나', 신발 전문 전자상거래 '킵스크루', 스포츠 전자상거래 '쥬군 스포츠' 등
- (문화·오락 분야 2개사) 아동용 장난감 제조 브랜드 '스타포니', 게임개발자를 위한 콘

텐츠 제작 플랫폼 '야하하' 등

- (비대면 서비스 분야 2개사) 고화질 온라인 화상회의 '파이러윈', 가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췌이환테크놀로지' 등
- (스마트제조 분야 2개사) AI 기반 해양 폐기물 수거 로봇 '오픈오션 엔지니어링', 휴대폰 연동 AR/MR 안경 '엔리얼' 등

☑ 알리바바가 투자한 스타트업과 사업분야 분석을 통해 미래 중국 미래 시장과 기술 트렌드 파악 필요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부터 대응까지(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의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액은 2,827억원

- 계약 전 아이디어·기술자료의 탈취,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자료 유용, 경쟁사로의 기술자료 유출, 해킹이나 M&A 등을 통한 기술 유출 등

☑ 스타트업은 기술탈취 이후의 대응 보다는 기술탈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

- 스타트업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특허 등을 미리 준비하면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고, 분쟁 시에도 유리
- 개별 스타트업 특성에 맞춰 '지식재산권의 확보' 혹은 '영업비밀 관리' 등의 기술 보호 방안으로 기술 탈취 예방·방지 필요

☑ 특허권 보유 여부에 따라 기술탈취에 따른 대응 방안 달라짐

- 기술 탈취가 의심되는 경우, 특허권을 가진 스타트업이라면 특허권 침해 여부 검토 및 증거수집→경고장 발송→행정상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민사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침해죄 고소
- 특허권이 없다면 특허 보상금 청구(특허 출원중인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기술자료 요구 금지(하도급의 경우), 상생협력법에 의한 보호 등으로 대응



(주)직방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날아오른 비결은

프롭테크 선도기업으로 발돋움

누적 앱 다운로드 3,500만 건(2022년 기준), 국내 열두 번째 유니콘기업, 미국 CB Insights 선정 글로벌 유니콘기업, 누적 투자 유치액 3,000억 원, 기업가치 2조 5,000억 원. 종합 프롭테크 전문 기업 (주)직방(대표 안성우)에 따라붙는 수식이다. 그것도 창업 10년여 만에. 직방은 2012년 국내 최초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 서비스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탔다. 원룸·투룸 정보 제공으로 시작해 빌라,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정보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국민 부동산 앱으로 입지를 굳혔다.

직방의 경쟁력은 단순히 물건, 시세 등 부동산 정보만 제공한 데 있지 않다. 실사용자의 리뷰로 신뢰를 쌓았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VR 홈투어, 3D 단지 투어, 모바일 모델하우스 등으로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도 공간 구석구석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게 주효했다. 또,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갱노노,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우주, 상업용 부동산 정보 플랫폼 네모를 운영하는 슈가힐 등을 인수해 이른바 부동산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이처럼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도전은 국내 부동산 업계에 발품 파는 오프라인에서 손품 파는 온라인으로 옮기고, 종합 프롭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직방은 최근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개 거래 서비스 '지킴중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은 미래를 여는 좋은 선택지

직방은 2010년 작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 한 차례 실패도 경험했다. 창업 아이템이었던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 솔루션 플랫폼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했다. 안성우 대표는 이 실패 이후 지금의 직방으로 피뎠다.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청창사) 1기로 입교해 창업 관련 패키지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고 스케일업에 성공했다. 지난 5월, 청창사 글로벌비전선포식에서 초대 명예교장에 오른 것도 이 같은 경험과 무관치 않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스타트업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1 직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인 국립주택회사(NHC)와 현지 스마트홈 환경 조성 관련 MOU를 체결했다. 2 늘 혁신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안성우 대표 3 안성우 대표(오른쪽)는 5월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비전선포식에서 초대 명예교장에 올랐다.(왼쪽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4 직방이 선보인 글로벌 가상 오피스 서비스 '소마(SOMA)'



“창업에 뛰어들 때 주변으로부터 용기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청창사는 필요한 지원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또, 성공한 사례를 계속 탄생시킴으로써 스타트업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입니다.”

안 대표는 청창사 같은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오늘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단단하게 다지는 디딤돌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불과 10년여 전만 해도 주변에서 만류하던 창업을, 이제는 청년들이 미래를 여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됐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영토 확장 중

직방은 최근 스마트홈 분야에 새로 진출했다. 지난해 삼성SDS의 홈IoT 사업을 인수해 ‘Beyond Hom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거생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서비스로의 확장을 선언했다. 이 같은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바다 건너편이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국립주택회사(NHC)와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홈 시스템 도입 시 최우선 협의, 직방의 네옴시티 수주 관련 네트워크 구축, 부동산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홈과 메타버스 환경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스마트홈 외에 글로벌 가상 오피스 서비스 ‘소마(SOMA)’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소마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이다. 직방을 비롯해 이미 스무 곳이 넘는 국내 기업들이 소마에서 근무 중이다. 이처럼 직방은 끊임없이 새로 도전하고 혁신하며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다. 유니콘으로 날아오른 비결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성우 대표는 스스로 다짐인 듯 스타트업 CEO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도전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레거시가 됩니다. 직방 역시 수많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에 자극받으며 레거시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한다면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 건강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TIP

(※)직방 안성우 대표가 스타트업에 전하는

키포인트

- 01 ——— 자신감 무언가를 이루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지금 하는 그 일에 자신감을 가져라.
- 02 ——— 목표 모든 건 CEO가 목표한 만큼 이루어진다. 목표와 꿈을 더 크게, 더 명확하게 가져라.
- 03 ——— 혁신 혁신하지 않는 스타트업은 레거시가 되기 쉽다. 매 순간 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즐겨라.

중진공 지원사업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도 중진공이 하면 다르다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성장 단계별 풀 서포트

창업지원도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착착!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변신, 구조 고도화로 창업에서 스케일업까지 쑥쑥

- 2011년에 개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직방, 토스 등 6,000여 개의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며 국가대표 창업지원 브랜드로 자리매김
- 전국 18개소 운영
-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선발해 사업화 지원금, 교육·코칭, 창업공간, 기술, 판로까지 일괄 지원
-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탄탄한 창업 초기 지원은 물론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등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년차 과정의 글로벌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

1년차 과정, 창업 3년 이하, 전국 18개소

...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비 지원

창업활동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지원



창업 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제공



창업 교육

창업 단계별
집중 교육



창업 코칭

전담 교수
1:1 집중 코칭



기술 지원

제품 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연계 지원

정책자금,
판로, 입지 등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

해외 판로,
마케팅 지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2년차 과정, 창업 7년 이하, 서울 1개소

...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받거나 현지 매출이 있는 기업
- ☒ 글로벌 AC 연계 현지 보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까지 팍팍

- 청년창업자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과 지도는 물론 투자와 후속 투자유치까지 책임
-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 강화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23년 4개소→'25년 13개소

(기존) 민간 운영	민간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사) 교육, 코칭 • (중진공) 선발, 사업비 지원,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사) 선발, 교육, 코칭, 후속 투자유치 • (중진공) 사업비 지원, 연계지원

중진공 지원사업

스타트업 지원



자금지원도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착착! 정책자금

스케일업 단계

스케일업금융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일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넥스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외감기업)
* 혁신성장 및 초격차·신산업 분야 중점지원(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문 참고)
- (융자한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기업당 60억~120억원
- (만기 및 상환조건) 5년 만기 선급이표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신용등급별·발행형태별 차등 적용

Unicorn



04

03



성장단계

성장공유형지원

정책자금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진입 및 데스밸리 극복 지원을 위해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해 자금 지원

- (지원대상)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
* 단,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경우에도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신청 가능
- (융자조건)

구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한도	기업당 30억원 이내	
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기타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창업초기 단계

창업기반지원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창업 초기 단계 성장 지원

- (지원대상)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융자한도)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p



02



창업단계

Start

01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에게 저금리의 창업자금과 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연계지원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인 창업기업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주력 산업은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융자금리) 연 2.5% 고정금리('23년 기준)

플러스 지원정보



정부부처 지원정책



글로벌 창업대국, 한국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도한다

-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조기지원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
- 초격차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 15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
- 5년간 2조원의 사업화, 기술개발(R&D), 자금 지원을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을 이끄는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육성

#중기부 #거대신생기업 #창업기업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본격적으로 추진, '로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로봇 관련 10개 창업기업과 관련 전문가, 주관기관 등이 참여해 로봇 분야에 대한 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규제·애로 모니터링
- 혁신 역량을 갖춘 로봇 분야 유망 기업을 창업 초기에 발굴·육성해 로봇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애로 해소 적극 추진

#중기부 #초격차 #로봇스타트업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5조원 추가 지원 : 초기성장단계 6.1조원, 중기성장단계 1.9조원, 후기성장단계 0.4조원
-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 1%),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 투자 시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등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을 지원해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중기부 #스타트업 #자금지원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추진

- 한·아세안 지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해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협력 강화
- 한·아세안 협력기금 심사 절차 등을 거쳐 동반관계 기간(~'24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9개 중점 추진과제 : SDGs 챌린지, 에코톤, 창업지도사 양성, 혁신컨설팅, 스타트업 정책연수, 기업가 포럼,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ABINET(스타트업 정보공유 플랫폼) 활성화, 스타트업 IR 및 투자유망 스타트업 정보교류

#중기부 #스타트업 #한·아세안스타트업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

아세안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의 고위급으로 구성된 협의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제31회 중소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중진공 사업 추진

- 접수기간 : 6월 7일 ~ 7월 14일
- 공모대상 : 국민 누구나
- 포상규모 : 대상 3백만 원(2편), 최우수 2백만 원(4편), 우수상 1백만 원(7편)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kosme-contest.com) 온라인 신청

#중진공 #전국민 #공모전_접수중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통화방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스케일업 유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 온라인 신청
- 문의 : 중진공 성장융합금융처(02-2130-1454)

#중진공 #스케일업 #자금지원

플러스 지원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스타트업 세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 ✓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 신청방법 : 차수별 지원 방법 상이
- ✓ 문의 : 중진공 이어드림스쿨(02-6735-1343~4)

#중진공 #스타트업 #이어드림스쿨



2023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신청대상 : (팁스)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딥테크 팁스)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팁스 및 딥테크 팁스 선정 창업기업
- ✓ 신청방법 : 지원사업별로 상이
- ✓ 문의 : 한국엔젤투자협회(02-2440-7421)

#중기부 #창업지원 #팁스



2023 K패션오디션 '비기너 부문' 모집 공고

패션 브랜드 창업을 통해 국내 패션시장 초석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이너 성장브랜드 창업 지원

- ✓ 신청기간 : 7월 5일까지
- ✓ 신청대상 :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 또는 패션 예비 창업자(최종 학력 졸업 기준 5년 이내)
- ✓ 신청방법 : 한국패션산업협회
(www.kfashionaudition.or.kr/audition/) 온라인 신청
- ✓ 문의 : 한국패션산업협회(02-528-0108)

#산업부 #브랜드창업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중소기업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 지원

- ✓ 신청기간 : 6월 1일~12월 31일
- ✓ 신청대상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수출국 다변화기업, 수출 유공 포상기업
-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www.exportvoucher.com/shipping) 온라인 신청
- ✓ 문의 : 중진공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중진공 #물류바우처 #수출



IP디딤돌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단, 당해 연도 창업자는 가능)
- ✓ 신청방법 :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신청
- ✓ 문의 :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지역지식재산센터 #창업 #IP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 × 대상홀딩스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PoC(기술검증)협업, 투자 유치, 사업화, 입주 공간 등 지원

- ✓ 신청기간 : 7월 2일까지
- ✓ 신청대상 :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 대상홀딩스와 협의 의지가 있는 스타트업
- ✓ 신청방법 : 서울스타트업플러스(www.startup-plus.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서울경제진흥원(02-3778-2723)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 #PoC협업

스타트업에 딱 좋은! 중동 진출 유망분야



BNPL



-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BNPL(Buy Now Pay Later, 결제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제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내는 서비스) 확대 추세
- 선진국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시장이 BNPL 주도, 리테일 고객 20%가 결제 시 첫 결제 옵션으로 BNPL 선택
-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동 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진출 유망

#BNPL #핀테크 #UAE



뷰티



- K-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에 대한 중동시장 호감도가 높아 K-뷰티 성장세도 지속되는 추세, '20년 대비 '21년 중동 뷰티 수출 26% 증가
- 색조화장품을 비롯해 국내산 천연재료를 사용한 제품, 나노기술과 특허,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뷰티테크 제품 유망 분야
- K-뷰티 전문 현지 오프라인 편집매장 진출, 이커머스 플랫폼도 유망

#K-뷰티 #색조화장품 #무이(MUI)할랄



블록체인 게임



- 중동 지역 내 한국게임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UAE 등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해외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카타르와 UAE의 게임 이용 비용이 가장 높고, 평균 이용 시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동 국가 대부분이 친블록체인 정책을 펼침에 따라 성장 확대 추세, 위메이드와 네오위즈홀딩스가 UAE에 지사 설립

#K-게임 #블록체인 #UAE



스마트팜



- 코로나19, 러-우 전쟁을 겪으며 수입 위주로 식량을 확보하던 중동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마트팜 산업에 적극적
-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중심으로 수경재배식 수직농장(외부환경과 분리된 시설에서 최적의 농작물 성장 환경을 제공해 농작물을 키우는 시스템) 시장 활성화
- 특히 중동시장은 대량생산 시스템이 가능한 한국형 수직농장 시스템에 주목

#스마트팜 #수직농장 #사우디아라비아



클라우드 키친



- 공유주방을 활용해 음식 조리부터 배달까지 대신해주는 클라우드 키친(cloud kitchen) 플랫폼 인기
-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으로 확산 추세
- 설립 2~3년 만에 유니콘으로 등극한 UAE의 클라우드 키친 스타트업 키토피(KITOP) 영향으로 시장 활황

#플랫폼 #UAE #ICT



이커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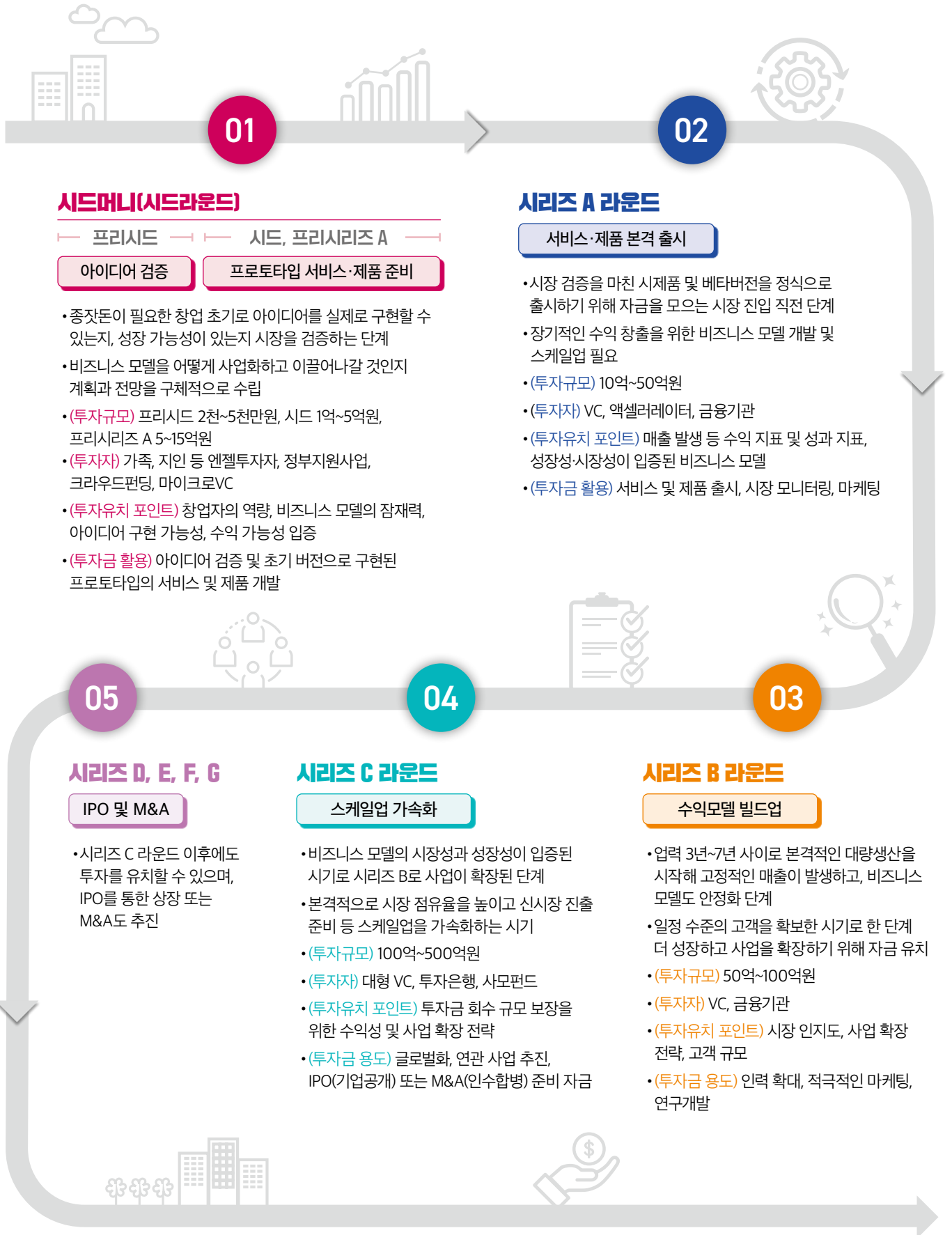
- 중동 이커머스 시장은 '22년~'27년까지 연 1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동 국가 대부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이커머스 산업 성장 지원, 특히 관련 상법 개정으로 해외 기업의 중동 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여건 유리
- 뷰티, 패션, 식품, 전자 제품 등 K-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 관련 제품 중심의 이커머스 플랫폼 스타트업 유망

#K-제품 #이커머스 #사우디아라비아



꼼꼼 가이드!

스타트업 투자유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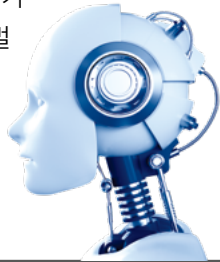


Hot! 키워드



챗GPT가 불러온 생성AI 열풍

- 챗GPT의 성공으로 생성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생성 AI(Generative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
- 해외에서는 오픈AI의 '챗GPT'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챗', 구글의 '바드',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이,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이루다', 업스테이지의 '아숙업',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7월 공개 예정)' 등 속속 등장
-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4.6% 기록할 것으로 전망, 생성AI 관련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규모도 2022년 기준 21억달러로 2020년 이후 400% 이상 대폭 증가



굿바이 MZ세대~ 이젠 **잘파세대**가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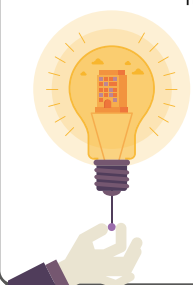
- 최근 '잘파세대'가 트렌드 주도층으로 새롭게 부상함에 따라 유통, 패션, 금융업계 등에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 전략을 선보임
- '잘파(Zalpha)세대'란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를 합친 신조어로 MZ세대보다 연령대가 낮음
-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고 있으며 메타버스나 NFT, AI 등을 통한 경제활동에 익숙하고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

하고 소비하는 것이 특징. 친환경이나 커스터마이징, 젠더리스 등이 잘파세대를 공략한 대표 아이템으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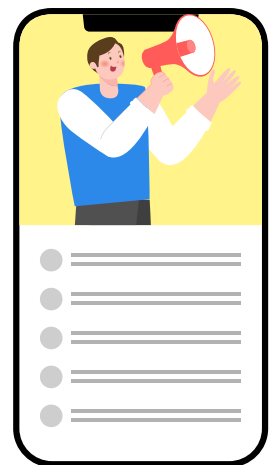
업종 특성을 반영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선

-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청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벤처기업확인' 제도의 평가 기준 완화
- 벤처기업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은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 계획,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3년 이상 기업은 벤처 전환, 현재 구축된 자원 활용 측면을 중점 평가
- 재확인 신청 기업은 이전 벤처기업확인 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목표 달성, 성장 여부, 진척 사항을 중점 평가
- 바이오/의약품 및 플랫폼 기반 IT 업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사업 성장성 평가 시 재무적 요소 외 기술개발 진척 성과와 서비스 성과 평가 항목을 각각 추가



이 제품 사지 마세요! 디인플루언싱

- 인플루언서의 반대 개념인 '디인플루언싱(deinfluencing, 영향력을 줄인다)' 문화 확산
- 제품의 좋은 점만 부각하는 인플루언서와 달리 디인플루언싱은 직접 써보고 형편없는 제품에 대해 불매를 권함
- 과도한 제품 권장과 홍보,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인플루언싱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경제이슈 읽기



국제금융센터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2023년 5월 말 기준)

✓ **세계(+0.1%p)** :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 등 일부 경기지표가 양호하나, 고물가 지속,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 및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 상존

- 미국(-) : 소비 수요와 생산은 양호하나 순수출 위축(상품무역적자 3월 846억 달러→4월 968억달러)으로 성장 압력 상존.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일단

락되면서 통화정책에 관심 집중

- 유로존(-0.1%p) : 내수 약화, 제조업 부진 등 경기둔화 가시화. 독일(전기 대비 성장률 1Q -0.5→2Q -0.3%)의 기술적 경기침체* 등으로 '23년 유로존 성장 전망 하향(1.3→1.1%)

기술적 경기침체란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두 분기 연속 하락하는 현상

- 중국(-0.2%p) : 생산 및 투자 회복세가 예상 대비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성장 전망 하향
- 일본(-0.1%p) : 지속적인 고물가, 대외수요 둔화에도 견조한 내수 등 1분기 성장 호조. 다만 하반기 주요국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 불가피

현대경제연구원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경기 회복 모멘텀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 **2023년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 1.8%→1.2%로 하향 조정('22년 2.6%)**

✓ **하향 조정 요인으로는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 내수 회복 모멘텀 상실 우려 잔존,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이 꼽힘**

- 특히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우려 확대

✓ **하반기 경기 회복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 필요**

-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수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외교 성과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외교 강화
-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산업연구원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세,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1.4% 예상**

- 하반기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 전환 예상

✓ **하반기 세계경제는 러·우 전쟁과 글로벌 은행위기 등의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세 예상**

- 미국은 중소은행들의 파산 위험성 상존, 일본은 수요 약세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 동인 미흡,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정 여부 등이 주요 변수, 중국은 서방 국가들의 수출제한 조치로 외수에 의한 성장 동력 미약 예상
- 유가 70달러대 후반, 환율 1,280원 내외 전망

✓ **하반기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 부진

-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내수경기 둔화로 전년 동기(2.9%) 증가에서 -4.9% 감소로 전환 전망
- 생산의 경우 조선, 철강,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등으로 증가세 둔화 및 감소세 지속 전망

Monthly 경제 동향



한국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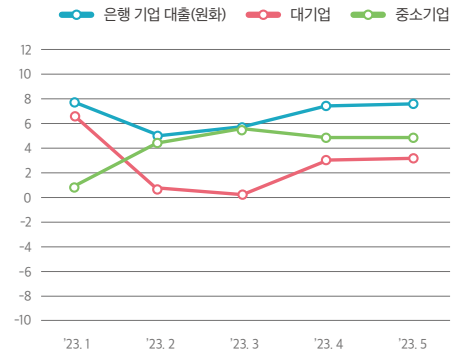
5월 금융시장 동향

-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조기 전환에 대한 기대 약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등으로 상당폭 상승
 - 주요 단기금리는 단기채 발행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금리 반등, MMF* 수신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
-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미국 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 해소, 외국인 주식 순매수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 경신(6월 7일 2,615.6)
 - 은행 가계대출(23.4월 +2.3조원 → 5월 +4.2조원)은 상당폭 확대되었으며, 기업대출(+7.5조원 → +7.8조원)은 높은 증가세 지속, 중소기업 대출(+4.4조원 → +4.4조원)은 은행의 완화적 대출 태도 등으로 꾸준히 증가

*MMF(Money Market Funds)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

<기업 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기간 중 잔액 증감,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국제 금융센터

5월 국제금융시장 동향

- (주가) 미국 은행권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도 빅테크 중심의 양호한 1분기 기업실적 발표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3월 말 대비 세계 +1.2%, 미국 S&P +1.4%, 신흥국 -0.9%)
 - 예상보다 견조한 기업 실적 발표로 경기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인플레이 하방 경직성,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지연 등이 향후 주가 상승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채권) 장기금리(10년)는 1분기 성장을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속,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반등(+11bp, 3.57%)
 - 대다수 IB(투자은행)들은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최종금리 상단 5.25%)를 예상하고 있으나 타이트한 미국 고용시장 및 임금 상승, 높은 서비스 물가 지속 등의 요인으로 연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최종금리 상단 5.5% 또는 5.75%)을 전망 시각도 상존

- 달러화는 시장동인이 이동(물가→성장둔화)하고 통화긴축 종료기대가 커지며 약세(-0.4%), 엔화는 신임총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시사로 약세(-3.3%)
 - 최근 기대 인플레이 등 경제 지표 호조와 은행권 불안 등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당분간 하방 경직성 전망

한국개발 연구원

6월 경제동향

- 국내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 제조업은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평균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정체되고 재고율은 상승하는 등 부진한 양상
 -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지표들도 나타남
- 소비시장은 소비 증가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세 지속 등 소비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긍정적 신호 유지
-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에 기인하여 증가세 둔화

-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으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
- 15~29세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둔화 흐름 지속
- 금융시장은 통화긴축 장기화에 대한 기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였으나, 단기자금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은 안정세 유지
- 통화긴축 장기화 기대로 국고채 금리(3년) 소폭 상승
-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부채 상환부담 등으로 분기별 상승 추세('22년 9월 0.21%→12월 0.25%→'23년 3월 0.33%)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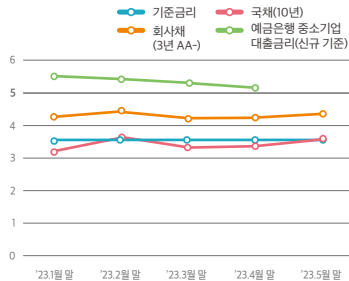
금융·실물경제지표 모니터링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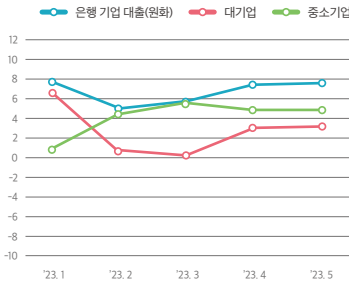
단위 : %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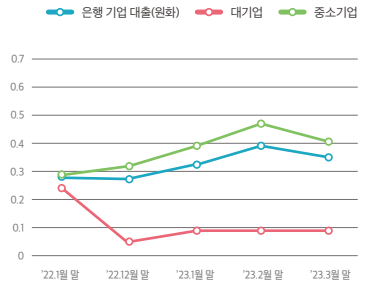
단위 : 조원

<기업 대출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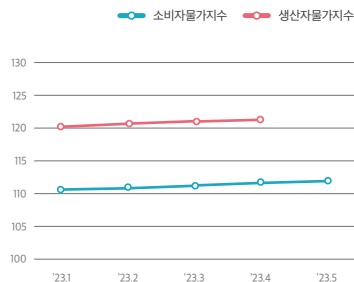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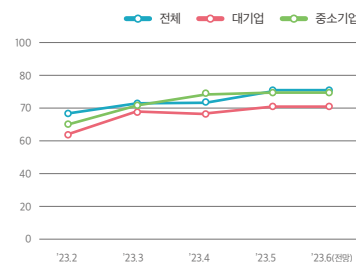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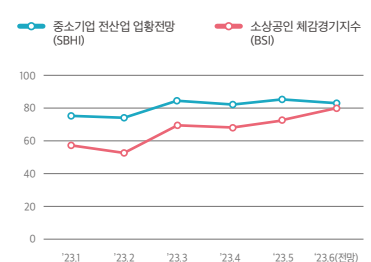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 기간 중 전액 증감,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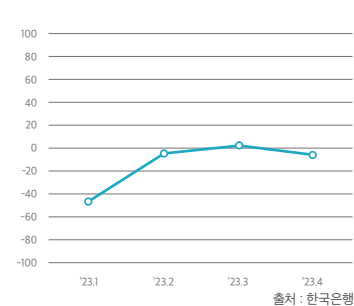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산업 업황실적 기준)<중소기업·소상공인 업황전망
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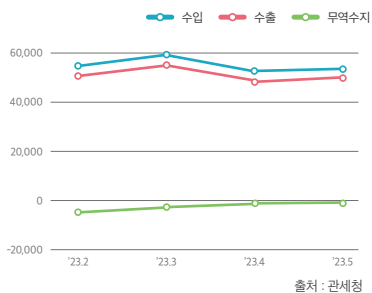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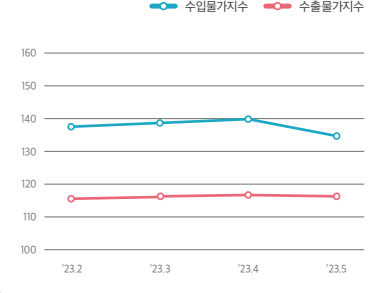
✓ 수출

단위 : 억달러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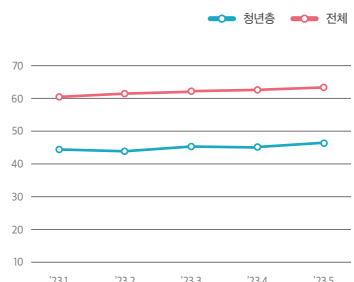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수출입실적 및 무역수지>
(통관기준 잠정치)<수출입물가지수>
(원화기준)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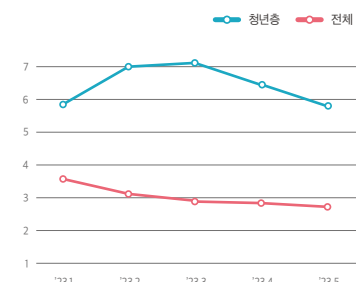
단위 : %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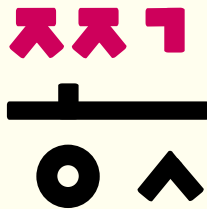
<실업률>



참고자료

1. 한국은행-주요경제지표
2. e-나라지표
3. 한국무역협회-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4. 관세청-수출입 무역통계
5. 통계청-통계포털
6. 국제금융센터-경제금융지표
7.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8.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대비로드(창업진흥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 2023년 1~3월 창업기업 동향(출처:중소벤처기업부)
10. 지역 예비유니콘의 현황과 정책 과제(산업연구원)
11. 투자 스타트업, 넥스트 유니콘 될까? 내재된 성장 DNA부터 넘달라야 한다(현대경제연구원)
12. 알리바바의 유망 스타트업 투자 사례와 시사점(한국무역협회)
13. 스타트업 기술발전, 예방부터 대응까지(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14.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국제금융센터)
15.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경기 회복 모멘텀 발발에 주목해야 한다(현대경제연구원)
16.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산업연구원)
17. 금융시장 동향(한국은행)
18. 국제금융시장 동향(국제금융센터)
19. 경제동향(한국개발연구원)

2023.07 VOL.22



발행일

2023년 7월(통권 제22호)

발행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발행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정책연구실

기 획

규제정책연구실 황호연, 김혜은, 홍정원



이메일 구독



카카오톡 채널